

유기농업의 가치와 사회적 경제블럭

-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과의 융합 사례 -

최덕천

(상지대학교)

I. 서론

2010년 말 현재 친환경농업은 생산량 기준으로 12%, 농가 수 기준으로 15.6%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 유기농업 비중은 4%에 불과하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이 ‘저농약’ 중심의 양적 성장에 비해 유기농업으로의 질적 성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유기농업의 관행화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몇 가지로 요약해 보자. 첫째, 유기농업의 농공업화 경향에 대한 경계이다. 허 장(2007)이 제시하였는데, 주로 미국의 유기농업 관행화 논쟁을 소개하면서 유기농업이 대규모 자본주의적 기업농에 의해 특화된 작물에 집중 경작됨으로써 전통적인 유기농업의 생산-유통-소비방식으로부터 농공업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유기농업의 목적을 공익적 가치보다는 소득증대의 측면에 비중을 둬으로써 유기식품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는 등 지나치게 산업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유기농산물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품화가 진전되고 있다. 조완형(2009)은 대기업 식품회사의 유기농시장 진출 및 유기농식품 수입 등에 따라 시장지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농림수산식품부(2011)도 친환경농산물의 50%정도가 대형마트와 전문매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기농업의 문제에 대해 이효원(2010)은 기술과 이념이 제대로 정립된 이는 서구의 유기농업에 비해 기술과 이념의 부재, 특히 이념적 문제가 더 크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유기농업의 사회적 가치 재평가이다. 지역과 지역사회에서의 생태적 순환농업, 지역순환경제에 대한 재발견이다. 세계화로 인해 소외될 위기에 있는 유기농업의 문제를 지역농업 나아가 로컬 푸드(local food)에서 찾는다. 오미일(2010)은 글로벌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로컬경제가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 사례로 원주지역을 들고 있다.

그 동안은 유기농의 가치실현을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의 연대가 중시되었다. 그러나 윤병선(2010)의 지적처럼 생협을 통한 유통은 많은 성과와 함께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새로운 유통경로와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단계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기농업과 의료생활협과의 융합사례를 시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에서의 사회적 경제조직화를 통해 유기농업의 내부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며 실천하고 있는 원주지역 유기농업의 지역순환경제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유기농업과 사회적 경제블럭

1. 생태시대에서 유기농업의 사회적 가치

현 단계는 ‘화석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기’ 라고 할 수 있다. 권광식·최덕천(2009)은 생태적 순환의 원리를 농업과 경제, 지역사회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기농업의 궁극적 가치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현이다. 일반적으로 유기농업의 가치는 시장에서 경쟁에 의해 가격으로 환산될 때 실현된다. 이때 경쟁력은 가격과 품질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이처럼 일반농산물은 시장에서 결정되나 유기농산물은 시장보다는 비시장 유통이 일반적이다.

유기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환경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환경가치에 대해서는 윤성이·권혁준(2011)이 농업부문에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배출원단위를 구축하였고, 유진채 외 3인(2010)은 유기농업의 공익적 기능 5가지에 대한 가치평가를 한바 있다. 김 호(2010)는 유기농산물 유통시스템 문제 중의 하나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들였고, 유기농업의 가치를 농업계 내외부에 홍보하기 위해서는 푸드 마일리지와 탄소 표시제, 환경보전효과 홍보, 도농교류 활동 촉진 등을 들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즉, 유기농업이 지역사회 유지와 지역주민 건강, 지역사회 환경보전, 도농교류를 통한 사회적 순환, 주민자치의 매개 역할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유기농업의 가치를 잘 공감하고 있는 생산자-소비자의 제휴가 필요하다. 그것이 시장경쟁에 대응하여 안정적·지속적 소비자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유기농업의 사회적 가치는 유기농업 생산-유통-소비의 순환이 시장경제체제보다는 ‘사회적 경제’에서 더 잘 실현될 수 있다.

2. 유기농업 가치실현과 사회적 경제블럭

1) 사회적 경제블럭의 형성

생태사회의 특질과 유기농업의 철학적 바탕은 ‘협동과 순환’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정부와 기업이라는 경제주체의 대안적 주체인 ‘제3섹터’인 사회적 경제부문을 유기농업의 사회적 가치실현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첫째, 이론적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알아보기로 한다.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와 국가계획경제에 대한 ‘대안경제’로서 ‘제3섹터’를 지칭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다.

주성수(2010)는 사회적경제의 광의의 개념으로 OECD가 내린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즉, ‘국가와 시장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조직들’로 정의하고 있다. 협의의 개념으로는 ‘회원들의 욕구에 기초해 회원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 중심의 조직과 기업’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7년 1월 3일 ‘사회적기업업육성법’(법률 제8217호) 제정이후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신명호(2008)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 성장¹⁾하면서 ‘사회적 경제’의 개념 정립을 위한 논의에서 자본주의의 무한경쟁에 대한 대안경제로 인식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지향하는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로 인식하고, 생산-소비-교환-분배의 경제영역을 관여하는 조직을 총칭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²⁾

사회적 경제블럭(social economy bloc)이란 사회적 경제의 연대 조직체(블럭)를 의미한다. ‘블럭’을 형성하는 목적은 보호된 시장(protected market), 즉 시장 경쟁을 지양하는 시스템을 형성하려는 데 있다. 특정 지역에서 보호된 시장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을 하지 않고 시장과 차폐(shielded)된 지역의 내부시장을 의미한다.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래 비용이 절감된다.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가 정부와 영리기업의 중간형태의 협동조합과 같은 조직이 중심이었다면, ‘새로운 사회적 경제’(Nouvelle Economie Sociale)³⁾는 고용창출과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면서 다른 연관단체에도 개방을 하면서 확장된 상태를 의미한다.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풀뿌리 사회경제 거버넌스가 형성되면 ‘지역’은 추상화된 경제적 공간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 생활이 이뤄지는 구체적인 ‘삶의 장소(life space)’로 재인식된다. 경제-사회-공간(지역) 상호간의 재구성을 통해 풀뿌리 차원의 새로운 사회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⁴⁾

둘째, 사회적 경제는 단체 간 ‘협약’, ‘연맹’을 통해 조직화된다. 각 단체가 조직화하여 내부시장을 형성하고 상호부조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 협약에서 ‘공동 소유, 민주적 운영, 인간적 사회서비스 실현, 협동을 통한 사회적 목적 구현’을 특징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전이 경쟁과 이윤추구로 대변되는 주류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원동력⁵⁾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경제 블록의 형성을 위해서는 <그림 1>과 같이 서로 다른 각 부문이 서로 융합(convergence)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제와 조직, 정책간의 유기적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대안조직이 형성되는 것이다.

1) 2011년 6월 현재 약 1,500개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면서 1만 3천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를 더 활성화 하기 위해 정부는 용자를 늘리고 민간투자회사도 사회적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다.

2)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사회적일자리사업 조직, 장애인보호작업장 등의 생산조직과 생협 등 협동조합, 자선단체와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지역화폐운동,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로컬푸드 조직, 공정무역 등을 그 사례조직으로 생각한다. 자세한 논의는 신명호(2008)를 참조할 것.

3) Jean-Louis Laville(1994, 1998), 노대명(2009),p.77에서 재인용

4) 정규호(2008), p.119.

5) 원주 생명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화(블럭) 협약문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적 경제시스템 안착, 둘째, 상호협력을 통해 발생한 잉여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셋째, 참여단체간의 민주적 소통과 조직 확대, 넷째, 각 조직간의 자율규제, 다섯째, 시장경쟁의 대안으로서의 생명공동체 추구이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2010), p.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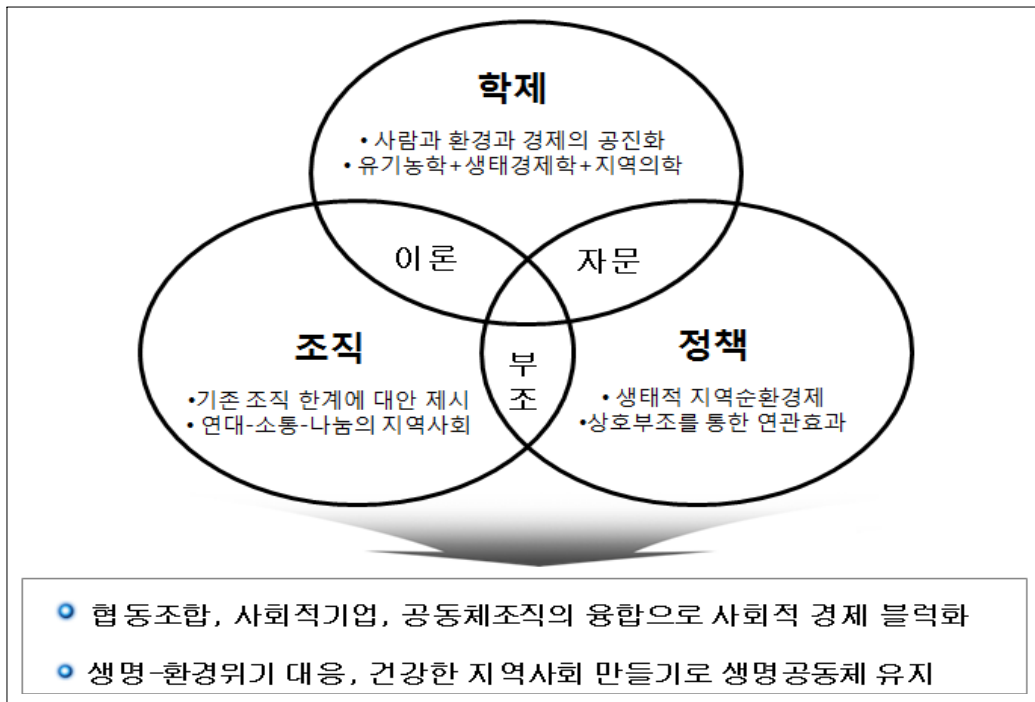


그림 1. 사회적 경제의 부문별 융합 개념도

2) 원주의 새로운 사회적 경제블럭 전개

원주는 생명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유기농업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효시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 1960년대 구판장 활동에서 시작한 유기농업운동은 1972년에 설립된 밝음신협을 활용하여 협동조합들이 설립되었다. 2003년에는 이들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위해 협동조합운동협의회를 결성, 여기서 형성된 역량을 네트워크를 통해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의 풀뿌리 거버넌스를 실현하였다. 지역사회의 다른 단체들과 협의체를 형성하여 2005년에 ‘친환경농업지원육성을위한조례’, ‘학교급식조례’, ‘보육조례’ 등 3대 조례 제정에도 기여하면서 유기농업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였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 경제’의 조직화의 길로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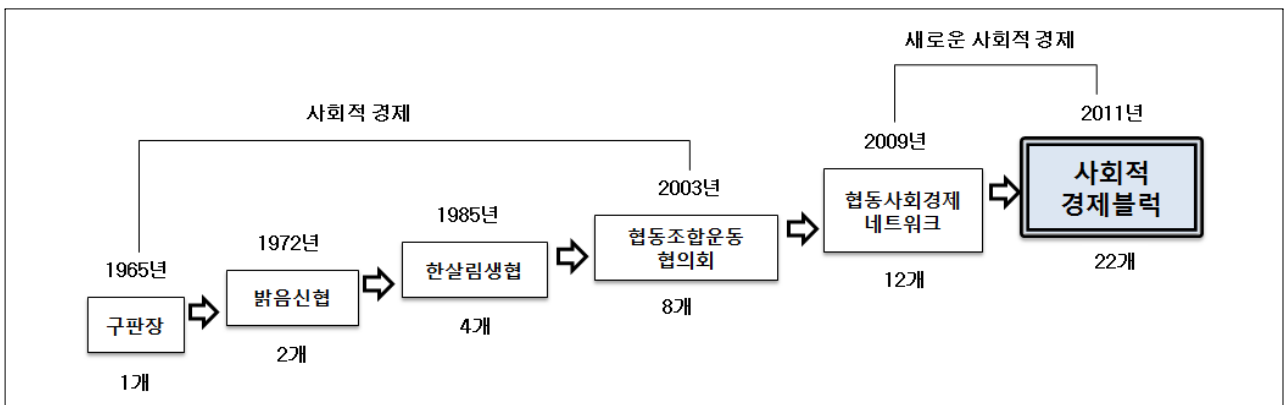


그림 2. 원주 사회적 경제의 조직화 경과

2011년 현재, 원주의 사회적 경제블럭에는 <표 1>에서와 같이 9개 부문에서 모두 22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유기농업의 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 신용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교육, 환경산업, 사회서비스, 문화부문이 서로 협동과 순환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 협약에 참여한 22개 단체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종(異種) 협동조합간 협동⁶⁾에다가 사회적기업, 비영리공동체 등 지역의 풀뿌리조직이 융합된 새로운 사회적 경제 조직체인 것이다. 이 조직체의 특징은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쟁 압력에 대해 협동조합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특성을 동시에 수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블럭은 앞으로 심화와 확장을 할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재 가입된 단체의 연관 기관, 예비 사회적 기업, 창업 준비 중인 사회적기업, 연관 사회시민단체,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각급 학교 등이 예비 조직이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유기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블럭을 형성하였지만 규모면에서는 협동조합기업이 발전한 유럽에 비해서는 아직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이탈리아의 트렌토나 볼로냐⁷⁾의 사회적 경제 조직체는 역사도 깊고 규모도 매우 크다.

원주 사회적경제블럭에 참여하는 22개 단체의 지역사회 기여도는 조합원 및 회원(구성원)이 총 31,000명으로 원주시 인구의 10%에 해당한다.⁸⁾ 물론 여기에는 다른 단체에 중복 가입한 사람을 포함한 수치이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단순 매출액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앞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생협법 개정에 따른 협동조합간 공동이용이 활성화 되면 이러한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주의 유기농업은 <표 1>과 <그림 3>에서와 같이 사회적 경제블럭의 협동·순환 시스템에 입어 유통애로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다. 예컨대, 원주생협의 경우, 유기농업 생산자들은 자체 생산자조직 유통법인을 통해 수매와 물류를 거쳐 가공분야인 사회적기업이나 소비자생협에 납품한다. 또한 유관 사회적기업인 친환경급식지원센터(2011년 사회적기업 맞두레로 변경), 행복한 시루봉에 유기농 떡 가공으로 납품하여 위커스 콜렉티브 형태로 가공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원주한살림도 비슷하다.

6) 우영균(2010) 참조 바람

7) 이탈리아 트렌토(Trentina)는 인구 50만 명이 사는 도농복합도시이다. 인구 절반인 255,000명이 협동조합 조합원이다. 이 도시에는 536개의 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경제조직(트렌토협동조합연맹)을 이루고 있다. 소비자협동조합 79개, 농업협동조합 92개, 서비스, 사회서비스 및 노동조합이 298개, 신용조합 46개, 기타 조합이 21개로 구성되어 있다. 연맹 산하의 종사자수는 16,000여명, 임원 566명, 연맹 직원 174명이다. 연간 24억 유로(약 3조 6천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 연맹조직은 컨소시엄, 협력, 사회참여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인증, 출판, 연구, 각종 지문, 임금 등 다양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역순환의 내부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볼로냐(Bologna)도 시민 대다수인 100만명이 조합원이며, 전체 근로자의 10%인 3만 5천명이 약 300여개의 협동조합에 고용되어 있고, 연간 32억 유로(약 4조 8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ASSEMBLEA ORDINARIA(2010), p.16. 원주한살림소비자협동조합, 사회적 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2010.7.

8)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내부자료, 2010.

표 1. 원주 사회적 경제블록화 사업 참여 22개 기관 현황(2011.3.)

단위: 천원, 명 / 연

부문	단체명	주요 사업	매출액	고용	유형
생산 (유통)	원주한살림*	유기농산물 생산, 유통	-	-	조합
	원주가톨릭농민회	유기농산물 생산, 유통	1,615,022	18	법인
	남한강 삼도생협	유기농산물 생산, 유통	330,000	1	조합
	원주생협(호저생명)*	유기농산물 생산, 유통	1,984,365	4	회사
가공	(주)살림농산	유기농식품 가공(참기름 등)	2,554,305	6	기업
	행복한 시루봉	유기농산물 가공(떡, 반찬 등)	120,000	12	기업
	친환경급식 지원센터(맛두레)	유기농산물 학교급식, 가공, 유기농식당 등 로컬푸드 지원	927,636	26	기업
	(합)햇살나눔	유기농산물 가공	337,709	18	기업
유통	신화마을	일반 농산물 유통	211,844	18	법인
소비	원주생협	유기농식품 및 친환경 생활재	1,759,329	31	조합
	원주노인생협	노인 사회적 일자리, 식당	1,070,321	19	조합,기업
	원주한살림	유기농식품 및 친환경 생활재	3,406,816	30	조합
	원주의료생협	보건의료, 건강마을 복지서비스	1,266,419	91	조합,기업
	상지대생협	유기농 구내식당 및 교육	2,317,000	44	조합
신용	원주밝음신협	여수신 업무, 협동조합 지원	6,068,450	35	조합
	갈거리사랑촌*	취약계층 마이크로 크레딧	-	-	조합
교육	소꿉마당	협동조합형 생태 유아원	125,000	5	조합
	참꽃어린이학교	중등과정 생태 대안학교	3,400	2	조합
사회 서비스	성공회 나눔의 집	저소득 가정 아동 돌봄	219,786	10	단체
	원주지역자활센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1,000,000	9	단체
	갈거리사랑촌	소외계층 복지서비스, 인문 교육	700,000	15	법인
	원주YMCA아가야	취약계층 어린이 보육	251,591	49	기업
환경 생태	(유)다자원	재활용품 수거 및 자원순환	154,840	16	기업
	(주)노나메기	친환경 생태주택 시공, 수리	114,479	11	기업
문화	문화생협	생태적 지역문화운동	15,000	0	조합
	(영)신화마을*	지역의 전통 농경문화 전승	-	-	법인
총계			26,553,312	470	

주:1) *표시는 중복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임. 원주한살림과 원주생협의 소비자부문 통계에는 생산부문이 포함되어 있음

2) 유형에서 기업은 사회적 기업, 조합은 협동조합, 단체는 비영리 공동체,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자료: 원주에 사는 즐거움 워크샵 자료집(2011.3),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내부자료.2010.

각 참여단체의 2010년 정기총회 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3) 원주 사회적 경제블록에서 유기농산물 생산-유통-가공-소비의 흐름

원주의 유기농업은 생산자조직이 가공기업과 유통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사회적 경제블록의 소비시스템에서 소비함으로써 ‘잘 보호된 내부시장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기농산물 생산 → 유통 → 가공 → 소비의 관계를 농산물(농식품)의 흐름과 자금의 흐름만 표시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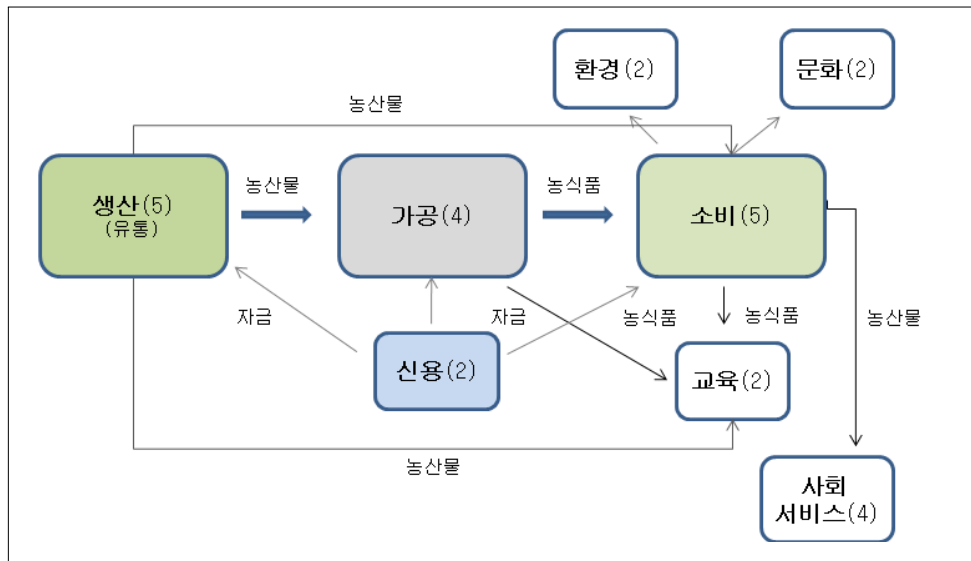


그림 3. 원주 사회적 경제블럭에서 유기농산물 생산-유통-가공-소비의 흐름

생산된 유기농산물은 블록 내부의 유통망과 가공업체를 통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가공부 문 역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조달받고, 나아가 자체 판매조직인 생협에 납품함으로써 사회적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푸드 마일도 줄일 수 있다. 로컬푸드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이다. 소득과 자원의 지역 내 순환으로 저비용-고부가가치-저엔트로피의 경제성을 실현할 수 있다. 유기농업의 가치가 지역 내 순환과 협동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그림 3>에서는 유기농산물의 흐름 이외에도 조합원 상호 출자 및 이용, 신용 공여, 환경산업을 통한 자원순환, 사회서비스, 생태지향의 교육 등이 유기적으로 연대하고 소통하며 순환을 하고 있지만 자세하게 표시하는 것을 생략하였다.

사회적 경제블럭이 형성된 이후 남은 정책과제는 상호부조의 활성화이다. 즉, 협동조합의 기초를 공고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표 2>와 같이 상호부조를 위한 22개 단체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협동카드 등을 이용한 협동조합 회원단체 조합원의 공동 이용⁹⁾, 협동기금 조성, 공동쇼핑몰 운영 등의 활성화 할 수 있다.

표 2. 사회적 경제블럭 내부의 상호부조 내용

조합원·회원 확대	매출증대(공동매장)	교육 및 강사 pool	금융허브화
협동기금	일자리 창출	인적·물적 후원	상호출자
사회서비스 제공			

자료: 김선기(2011), p.91.

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전부개정 2010.3.22 법률 제10173호]에 따르면, 제8조의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순환과정이 확대 재생산 되기 위해서는 자금이 매우 중요하다. 조직체의 자립과 발전을 위해서는 내부자금이 필요하다. 바로 상호부조의 순환고리인 협동기금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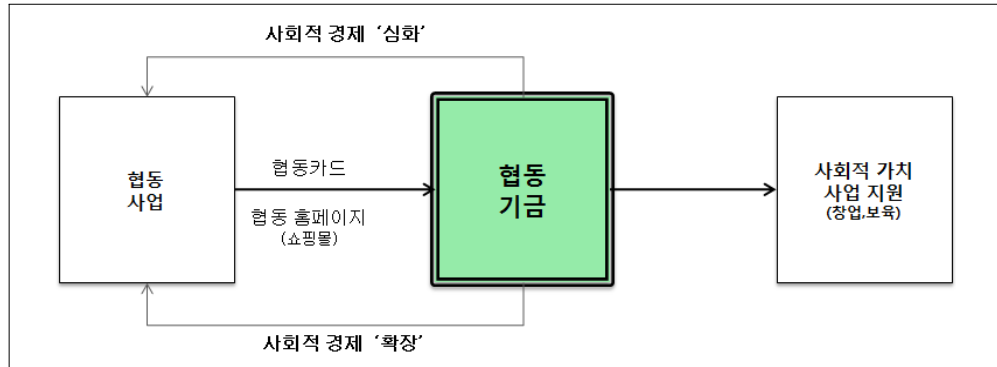


그림 4. 협동기금의 조성과 활용을 통한 조직 활성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동기금의 수입은 사회적 경제블럭 각 단체의 협동사업의 결과 생기는 잉여금 적립금 5%, 협동카드 수수료 수익 일부 등이 된다. 이렇게 형성된 기금은 블록 내에서 유동자금, 교육, 출자, 유기농산물 구매자금 대출, 상호기금 대출, 신규조직 창업·설립 지원 등 사회적경제의 심화와 확장을 위한 공동체기금으로 사용하게 된다.¹⁰⁾

III. 유기농업과 의료생협의 융합

1. 농업과 건강의 관계: 의료생협의 역할

농업과 질병, 화학농약과 농업인의 질병 연관성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일천하다. 임형준 (2009)의 연구 등이 있으며, 외국의 저널에서는 1990년대 이후 많은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 농업과 건강연구(Agriculture Health Study) 등의 지역사회의학 저널에서는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들의 질병을 유형별로 조사·분석한 연구결과가 많다. 관행농업에서 화학농약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농업인에게 각종 암과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이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이 살충제 등에 장기노출 되었을 때 각종 암을 유발한다는 보고이다. Michael C. R. Alavanja, Mustafa Dosemeci, Claudine Samanic. et al.(2004) 외 10편의 논문에서 폐암과의 연관성을 제시하였고다. Michael C. R. Alavanja1, Claudine Samanic1, Mustafa Dosemeci1. et al.(2003) 외 2편의 논문에서 전립선암과의 인과관계를, Lawrence S. Engel, Deirdre A. Hill1, Jane A. Hoppin.

10) 원주의 경우는 2008년에 원주한살림생협에서 분리된 (주)산림농산의 이윤 일부를 지역사회 환원차원에서 기부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10년 한 살림 정관이 개정되어 '잉여금의 5%를 협동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해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김선기(2011)의 논의를 참조할 것.

et al.(2005)는 여성 유방암, Kori B. Flower, Jane A. Hoppin, Charles F. Lynch, et al.(2004)는 부모가 살충제를 오래 사용했을 때 그 자녀에게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하였다. Lifang Hou, Won Jin Lee, Jennifer Rusiecki. et al.(2006)은 농약과 직장암과의 관계, Won Jin Lee, Jane A. Hoppin, Aaron Blair. et al.(2004) 외 1편의 논문에서 살충제와 백혈병의 관계를 조사하여 연관성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 둘째, 화학농약 등이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있다. Cheryl Beseler, PhD, Lorann Stallones, PhD, MPH, Jane A. Hoppin. et al.(2006) 외 1편에서는 화학농약이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셋째, 농약 등이 아토피와 천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Jane A. Hoppin, David M. Umbach, Stephanie J. London. et al.(2001)의 조사에서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 넷째, 호흡기질환에 대해서는 Jane A. Hoppin, David M. Umbach, Stephanie J. London. et al.(2004)이 조사하여 연관성을 증명하였다. 다섯째, 농약과 시각장애에 대해서는 Kamel, F. PhD, MPH, W. K. Boyes, PhD, B. C. Gladen, PhD, et al.(2000)이 조사하여 살충제 등이 망막 등에 영향을 미쳐 시각장애를 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IFOAM의 부회장인 안드레 류(2010)가 정리한 자료에서도 제초제 사용이 기형아 출산, 배란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등 많은 연구 결과를 찾을 수 있다.

위의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크다. 그 동안 우리는 ‘유기농산물은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하며 건강에도 좋다.’고 홍보해 왔다. 주로 환경호르몬, 아토피성 증후군 등 소비자의 건강에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면,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할 때 유기농업을 장기적으로 실천한 농업인은 일반인 표준치 또는 관행농업인과는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식(食)이 곧 약(藥)이란 말이 있다. 안산의료생활협동조합은 성인병 등 만성질환자 20명 정도를 한 팀으로 모아서 의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생협에서 조달한 현미와 생채식 식단, 운동처방을 5~8주 동안 실천하게 한 뒤 혈당검사 등을 통해 그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매우 호전된 결과를 보여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¹⁾ 원주의료생협 등도 그러한 ‘건강사업단’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의료생협에서는 관행농업과 유기농업이 농업인 및 소비자의 건강, 질병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연관성을 교육하고 홍보함으로써 유기농업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도농복합도시와 농산촌지역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지역에서 빈부격차로 사회적 소외계층의 의료복지가 지역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20년 국민의료비가 2007년 GDP의 6.8%에서 11.2%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불평등 문제는 삶의 질과 연관성이 크다. 엄선희·문춘걸(2010)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로 보건 의료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별로 본인부담금 기준 의료비지출의 형평성을 나타내는 kakwani지수가 같은 기간 모든 연도에서 -0.3167 정도로 역진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생협의 효시는 1994년 4월 24일에 창립한 안성의료생협이다. 협동조합들이 의료생협을 만든 원주의 사례와는 반대로, 안성의료생협은 2011년 2월 27일에 소비자생협 설립하였다. 2003년부터 의료생협 안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모태인 ‘생활재공동구매’ 소모임이

11) 안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건강실천단 평가보고, 내부자료, 2010.

활동하다가 생협으로 발족한 것이다. 이는 의료생협과 유기농업 연관 소비자생협이 내부적으로 식생활과 건강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에는 약 150개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인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13개 조합이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¹²⁾

의료생협은 지역사회의료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 박용섭(2010)은 지역사회의학의 범주에 노동자, 정신질환자, 농민, 장애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지역사회의료, 건강불평등 해소, 지역사회 평생건강 증진, 건강도시,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들이 단체연합을 통해 조직화 하여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医료를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사회적 경제부문인 ‘의료생활협동조합이다.

표 3. 유기농산물 유통경로별 농업 외적 가치에 대한 주요 관심도 비교

구분	농업	환경	식품안전	질병	삶의 질
직거래	△	-	0	△	△
	유기농업 지원	환경보전	안전,신선도	안전한 식생활	개별 도농교류
대형유통	-	-	△	△	-
	고품질 농산물	환경보전	신선도,안전	고객 건강	고품격 삶
생협	0	0	0	△	△
	유기농업 지원	환경과 건강	안전, 신뢰도	음식과 건강	상생하는 생활
의료생협	-	△	0	0	0
	농업인 보호	환경과 질병	농-소 건강	식생활과 질병	지역사회 의료

주) 각 소비경로별 관심도: 강함 0, 보통 △, 약함 -

유기농업은 농업 자체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면 이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소비하는 사람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유익하다. 유기농업의 관점에서 볼 때, <표 3>에 요약한 것처럼, 의료생협은 대형유통업체는 물론이고 기존의 소비자생협이나 직거래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질병을 예방하는 등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

2. 사회적기업 원주의료생협의 유기농업 연관활동

원주의료생협은 2002년 5월 4일에 협동조합간 협동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밝음의원과 밝은한의원 개원, 2011년에는 우리동네의원을 개원하여 활동하고 있다. 2007년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원주밝음신협, 한살림생협 등이 협동조합운동의 확장 차원에서 설립한 것이다.

원주의료생협의 사업규모는 <표 4>와 같이 2010년 총 매출액은 1,373,217,000원, 96명 고용(이중 비정규직 52명), 3개 의원에 이용자 수는 연간 4,500명이다.

12) 한국의료생협연대, 내부자료, 2010.

표 4. 원주의료생협의 주요 사업내용(2010말 기준) 단위: 천원, 명 / 연

사업 단위	사업 내용	매출액	고용	
조합부	조직, 교육, 홍보, 연대, 보건예방복지	62,449	4	
밝음한의원	한방진료	126,193	3	
밝음의원	양방진료, 건강검진	124,191	3	
우리동네의원*	양방진료, 건강검진	-	3	
요양보호사교육원	요양보호사 자격 양성교육	154,242	2	
재가요양 길동무	노인대상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544,726	65(52)	
위탁 사업	위스타트	저소득층 마을의	201,000	6
	밝음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아동 교육 및	52,334	6
	주거복지센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건강증진	50,238	4
	경로당 지원	경로당 활동 지원	3,200	-
총계		1,318,573	96(52)	

주: 1) 고용 인원은 상근 유급직원의 수. ()안은 비정규직
 2) 제2진료소 우리동네의원은 2011.3월 개원하여 통계 제외
 자료: 원주의료생협 제9차 정기총회 자료집, 2011.2. 및 내부자료, 2011.6.

<표 4>를 보면 과연 의료생협이 유기농업 가치실현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원주의료생협의 활동을 의료사업을 기준으로 후방부문과 전방부문으로 나눠 유기농업과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물론 이러한 활동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부는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다. 예컨대, 건강실천단 활동은 유기농산물의 가치를 실증할 수 있는 활동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5. 원주의료생협의 사업부문별 내용과 유기농업 연관 활동(모형)

부문	사업명	주요 내용	유기농업과의 연관성
후방부문	신규 조합원 교육	보건예방 및 건강증진 방향	유기농 식사와 질병관리
	유기농산물 소비	조합원들의 유기농업 지원	생협 등에서 유기농식품 구매
	한약재 구매	친환경 계약 재배 및 구매	친환경 인증 및 자연산 구매
	한약 조제	친환경 약재로 제조	친환경 인증 및 자연산 사용
	식품 가공	건강보조식품	지역산 유기농산물 재료 사용
의료사업 부문	1차 예방	건강유지 및 증진	유기농 식사교육(농민, 소비자)
	2차 예방	질병진단 및 치료, 처방	처방, 유기농 중심 식이요법
	3차 예방	만성질환 사후관리	유기농 중심 식이요법 관리
	양·한방 협진	체질별 진단, 처방	유기농 식단 식이요법 처방
전방부문	식사모임	식생활 상담과 실천 메뉴얼	유기농 중심 식이요법 실습
	건강실천단	식이요법, 운동요법 실천	유기농 곡채식 식단, 운동처방
	식이요법처방	질병별·체질별 식이요법	유기농 식품 힐링 푸드 지도
	건강교실	건강과 식사, 운동, 정신	식사, 운동, 정신 등 건강지도
	자연건강생활	식생활, 정신, 운동 등	면역력, 자연치유력 증진 생활
	방문상담	가정 및 지역방문 상담	질병, 식생활 등 건강생활관리
	소모임 활동	작은 지역별 소모임	건강생활 상담, 조합원 소통
	운동모임	산악회 등 야외활동	등산, 운동, 숲 치유 등
	지역봉사	연관행사 참여, 의료봉사	건강검진, 유기농식품 홍보
	대외 교류	외지, 외국 조합과 교류	각종 활동정보 등 교류협력

자료: 사회적기업 원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9차 정기총회 자료집, 2011.2 및 내부자료.

의료생협은 일반 병원과 다를 게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협동조합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조합이다. 질병에 대해 대증요법만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유기농 식생활 등 전인적인 생활관리를 처방한다.

IV. 결론

유기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유기농업의 경제성 못지않게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현 단계는 화석문명을 넘어 생태문명으로의 ‘문명사적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유기농업은 ‘생명성, 면역성, 다양성’을 기술적 원리로 하는 생명산업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농업의 가치를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현재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유기농업조차도 그 경쟁구도에 편입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경쟁력 있는 유기농업이라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시장체제에서는 보편적으로 경쟁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시장 편입과 정부 의존에 대한 대안경제인 ‘사회적 경제 조직화’가 유기농업의 가치실현을 위한 대안이다. 특히, 지역사회 단위로 하면 더욱 바람직 하다. 이제 유기농업의 가치를 ‘유기농산물은 안전하고 환경을 지킨다.’의 차원을 넘어서 ‘유기농업 농업인 및 소비자의 보건과 질병예방이 기여하며 지역순환을 통한 생태공동체를 지키는 일을 통해 지역순환의 자립경제를 보전한다.’는 방향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할 때이다.

원주는 유기농업운동과 동시에 협동조합운동의 발상지로서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다. 협동조합운동에서 시작한 생명공동체운동은 확장과 심화를 거듭하며, 2011년 3월에 22개 단체가 모여 ‘원주 사회적 경제블록화 협약’을 체결하였다. 정부의 규제와 자본과의 경쟁에서 보호된 시장에서 상호부조를 통해 내부시장을 형성,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유기농업 소비시장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블록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해 협동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원주지역 유기농업의 특징은 바로 사회적 경제블록의 시스템을 주도하면서 생산-가공-유통-소비를 유기농업 생산자가 주도적으로 내부화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원주의료생협과 같은 전방부문과의 협동을 통해 더욱 공고한 소비시장을 확보한다. 원주의료생협은 관행농업에서의 농약과 질병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반대로 같은 방법은 유기농업인의 질병 등을 연구·조사하고, 유기농산물 위주의 식생활을 하는 조합원들과 일반인과의 질병 차이를 비교하여 유기농업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을 하면서 유기농업을 지원한다. 의료생협은 농업-환경-질병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전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기농업의 생명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원주의 사회적 경제블록이 유기농업 가치실현과 관련하여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으로 저비용-고부가가치의 지역순환농업을 통해 유기농업의 지속적인 내부시장을 확보, 유기농업 발전의 기반을 확보 연간 약 300억 원 정도의 매출액과 470명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유럽에 비하면 작은 규모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앞서가는 사례이다. 둘째,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비영리조직 등이 사회적 경제블록을 형성하여 민주적인 생태적 거버넌스와 생명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정부와 기업 의존성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기농업이 의료생협과 융합함으로써 기존의 소비자생협과의 협력보다 한 단계 발전된 논리와 정책 방향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원주지역 사회적 경제블럭화 모델을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시대에 자원과 소득의 지역 내 분배로 지역자급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연구과제 원주 사회적 경제블럭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의료생협 조합원 중 유기농업인과 유기농산물 소비자 전수조사를 통해 의료생협이 유기농업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참고 문헌

1. 권광식·최덕천. 2010. 환경·생태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 김선기. 2011.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원주에 사는 즐거움 워크샵 자료집.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3. 김 호. 2010. 유기농산물의 유통실태 분석과 발전방안. 한국유기농업학회지 제18권 4호.
4. 노대명. 2009. 사회적 경제를 강화해야 할 세가지 이유. 창작과 비평 가을호(145호).
5. 노모토 야스오. 2008. 일본의료생협과 생협법-2008 ASEO in Seoul.
6. 농림수산식품부. 2011. 신 친환경농업 정책방향(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친환경 농산물 인증심사원 교육자료)
7. 박용섭 역음. 2010. 지역사회의학, 보문각.
8. 사회적기업 원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11. 제9차 정기총회 자료.
9. 신명호. 2008. 한국의 ‘사회적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서론. 도시와 빈곤 vol,89,Nov.
10. 안산의료생활협동조합, 건강실천단 평가보고, 내부자료, 2010.
11. 안드레 류. 2010. 지속가능한 환경보전모델로서의 유기농업 -한국과 팔당지역 농민의 권익을 위해.
12. 엄선희·문춘걸. 2010. 소득계층에 따른 보건의료의 형평성: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 16권 제1호.
13. 오미일. 2010. 글로벌경제의 대항 비전으로서 사회적 경제-‘경제의 지역화’ 로컬 경제운동과 관련하여. 로컬리티 인문학.
14. 우영균. 2009. 이종(異種) 협동조합간 연대에 의한 지역공동체운동 사례연구. 한국협동조합 학회. 한국협동조합협회.
15. 이효원. 2010. 유기농업원론. 에피스테메.
16. 원주친환경급식지원센터. 2010. 식재료 푸드마일 실태조사 보고서.
17. 원주한살림소비자협동조합. 2010.3. 사회적 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18.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11. 사회적경제블럭화사업 심포지엄 자료집-원주에사는 즐거

음 잔치.

19. 유진채 외 3인. 2010. 유기농업의 공익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 한국유기농업학지 제 18권 제3호. 한국유기농업학회.
20. 윤병선. 2010. 대안농업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유기농업운동과 생협운동, 지역먹거리 운동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20집1호.
21. 윤성이·권혁준. 2011. 전과정평과를 통한 유기농자재의 탄소배출량 산정 연구-유기질비료를 중심으로. 한국유기농업학지 제19권 제1호. 한국유기농업학회.
22. 임형준. 2009. 우리나라 농업인의 악성종양 발생과 사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3. 정규호. 2008. 풀뿌리 사회경제 거버넌스의 의미와 역할-원주 지역 협동조합운동을 사례로. 시민사회와 NGO, V016.no1. 한양대학교 제3섹터 연구소.
24. 조완형. 2009. 친환경유기농식품시장의 동향과 개선과제. 농산촌어메니티와 생태농업. 자연과사람들.
25. 주성수. 2010. 사회적 경제; 이론, 제도, 정책. 한양대학교출판부.
26. 허 장. 2007. 유기농업의 “관행농업화”와 위기에 관한 논의. 농촌경제 제30권 제1호.
27. ASSEMBLEA ORDINARIA. 2010. Bilancio. Cooperazione Trentina.
28. Cheryl Beseler, PhD, Lorann Stallones, PhD, MPH, Jane A. Hoppin. et al. 2006. Depression and Pesticide Exposures in Female Spouses of Licensed Pesticide Applicators in the Agricultural Health Study Cohort. JOEM. Volume 48, Number 10.
29. Kamel, F. PhD, MPH, W. K. Boyes, PhD, B. C. Gladen, PhD,. et al. 2000. Retnal Degeneration in Licensed
30. Pesticide Applicators.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37:618±628.
31. JANE A. HOPPIN, DAVID M. UMBACH, STEPHANIE J. LONDON. et al. 2001. Chemical Predictors of Wheeze among Farmer Pesticide Applicators in the Agricultural Health Study. 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 VOL 165.
32. Jane A. Hoppin, David M. Umbach, Stephanie J. London. et al. 2004. Diesel Exhaust, Solvents, and Other Occupational Exposures as Risk Factors for Wheeze among Farmers. 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 vol.169.
33. Kori B. Flower,¹ Jane A. Hoppin, Charles F. Lynch,. et al. 2004. Cancer Risk and Parental Pesticide Application in Children of Agricultural Health Study Participants.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VOLUME 112 , NUMBER 5.
34. Lawrence S. Engel, Deirdre A. Hill¹, Jane A. Hoppin. et al. 2005. Pesticide Use and Breast Cancer Risk among Farmers' Wives in the Agricultural Health Stud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Vol. 161, No. 2.

35. Lifang Hou, Won Jin Lee, Jennifer Rusiecki. et al. 2006. Pendimethalin Exposure and Cancer Incidence Among Pesticide Applicators. *Epidemiology*. Volume 17, Number 3.
36. Michael C. R. Alavanja¹, Claudine Samanic¹, Mustafa Dosemeci¹. et al. 2003. Use of Agricultural Pesticides and Prostate Cancer Risk in the Agricultural Health Study Cohort.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Vol. 157, No. 9.
37. Michael C. R. Alavanja¹, Mustafa Dosemeci¹, Claudine Samanic¹. et al. 2004. Pesticides and Lung Cancer Risk in the Agricultural Health Study Cohort.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Vol. 160, No. 9.
38. Won Jin Lee, Jane A. Hoppin, Aaron Blair. et al. 2004. Cancer Incidence among Pesticide Applicators Exposed to Alachlor in the Agricultural Health Stud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Vol. 159, No. 4.